

[경제 재정 백서] 성장 회복을 위한 DX 과제, 중소기업 도입 검토는 40%에 그쳐

일본경제신문 2021. 9. 24.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정·재생담당대신은 24일의 내각회의에 2021년도의 경제 재정보고(경제 재정 백서)를 제출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기가 회복 국면에 있다며 성장에 대한 과제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의 지연을 꼽았다. 중소기업은 DX의 도입·검토가 40%에 머무른다. 성장 분야에의 노동 이동을 재촉하기 위해, 대학 등에서 다시 배우는 「리커런트 교육」의 추진도 요구했다.

백서는 내각부가 일본 경제의 현상을 매년 분석해, 향후의 정책 입안의 지침의 하나가 된다. 국내 경기는 「회복 국면에 있지만, 그 행보는 완만하다」라고 분석했다. 설비 투자나 주택 투자가 호조이지만, 긴급사태 선언 등에서 소비의 회복은 둔하다. 발밑에서는 반도체 부족이나 자동차 부품 등의 서플라이 체인의 혼란이 염려 재료가 되고 있다고 하여, 공급망의 「강인화」도 과제로 들었다.

감염 확대로부터 2번째가 되는 2021년도 백서는 코로나화로 부각된 관민의 과제의 해결의 길을 나타냈다. 특히 관민의 디지털화의 지연을 「중점으로 임해야 할 과제의 필두」라고 강조했다. 기업의 DX의 도입 상황의 조사에 의하면, 대기업은 「계획 책정 중」도 포함해 전체의 74%가 대응하고 있었지만, 중소는 「검토 중」을 포함해도 38%에 머물렀다. 대처에 차이가 생기고 있다.

<디지털 대응에 필요한 인재의 부족이 현저해지고 있다.>

기업에 디지털화를 담당하는 인재의 과부족을 물었더니, 전체의 55%가 부족하다고 회답했다. 해외 업체와 경쟁하는 대기업은 76%가 부족하다고 답한 반면 국내 거래가 많은 중소기업체는 50%였다. 중소기업편에서는 필요 없다는 응답도 17.7%나 됐다. 개발자와 이용자 쌍방에서 디지털 기술에 뛰어난 인재의 육성을 빼놓을 수 없다.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투자도 적다. 미일 정보통신업이 소비하는 연구개발비를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로 보면 일본은 0.11%로 미국(0.44%)의 4분의 1이었다. 기업의 디지털 대응에 대한 투자의욕은 강하여 백서에서는 "파급효과가 큰 분야로의 자원배분 확대"를 요구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로 기업의 채무는 부풀어 오르고 있다. 2021년 6월말 현재 전체 산업(금융보험 제외)의 채무는 16~19년 평균을 토대로 산출한 속도보다 27.1조엔 늘어났다.

매상의 감소로 운전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차입을 늘리는 기업이 많다. 특히 음식업은 차입금이 2.6조 엔 늘어나는 등 외출 자제의 영향을 받기 쉬운 업종에서 두드러졌다. 금융기관에는 기업의 경영 재건과 성장 분야로의 사업 전환 지원을 촉구했다.

향후는 기업이 리스크를 취해 사업의 재구축에 임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이나 그린 등 성장 산업에의 원활한 노동 이동을 지지하기 위해, 사회인이 대학 등에서 다시 배우는 「리커런트 교육」의 강화 등을 요구했다.

다만 이직할 때 드는 비용이나 시간적 여유가 없음을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도 많다. 일하면서 다시 배우는 '교육훈련 급부제도' 등의 지원책 활용을 요구했다.